

수사관 편견의 실증적 근거에 관한 연구

- 교통사고 피조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사관의 편견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mpirical Basis of Prejudice towards the Credibility of Persons under Investigation

이 주 략* · 탁 종 연**

< 목 차 >

I. 서 론	IV. 연구결과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V. 결 론
III. 연구방법	

<요 약>

수사관이 특정 집단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면 그 수사관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의 여러 업무 중 수사는 사건관련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 그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적 태도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관의 편견이 잘못된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밝혀 그들의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수사관들의 피조사자 집단 간 신뢰성에 차이가 있다는 믿음에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 지방경찰청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실시된 173건의 폴리그래프검사의 결과서가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로부터 피검사자와 관련된 인구사회적인 변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피검사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등이하의 학력을 제외한 어떠한 변수도 거짓진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교통사고조사 시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수사관들의 편견에는 실증적 근거가 없음을 의미하였다.

주제어 : 편견의 실증적 근거, 수사, 차별, 피조사자의 신뢰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제1저자)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공동저자)

I. 서 론

한 사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가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공평성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의 모든 참여자는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한다. 만약 특정 집단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시민들은 형사사법체계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존재가치와 정당성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차별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경찰은 종종 편견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미국의 경찰은 형사사법기관 중 편견을 가장 많이 가진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MacDonald, 2003 : 27).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경찰의 편견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나 공식적인 조사는 없었지만 언론의 경찰관련 기사를 통해 경찰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주장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수사관련 인터넷 민원들을 살펴보면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수사관이 편견을 가지고 피조사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주장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¹⁾.

이처럼 수사관이 특정 집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면 그 수사관은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경찰의 여러 업무 중 수사는 사건관련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 그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적인 태도를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관이 가진 편견이 잘못된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밝혀 그들의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특정 집단이 받는 불이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부 수사관들의 피조사자 집단 간 신뢰성에 차이가 있다는 믿음에 과연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편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 피조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수사관의 편견관련 민원사례 :

[http://www.bobaedream.co.kr/board/bbs/bbs_view.php?code=battle&No=144947&select=&content=&search_gubun=&s_pagescale=&search_day=&Pos=65685;](http://www.bobaedream.co.kr/board/bbs/bbs_view.php?code=battle&No=144947&select=&content=&search_gubun=&s_pagescale=&search_day=&Pos=65685)

<http://bbs1.kbs.co.kr/ezboard.cgi?db=1Tcolumnbbs&action=read&dbf=10427&depth=1;>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S&qnum=5319641\(2008. 1. 10. 검색\).](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S&qnum=5319641(2008. 1. 10. 검색).)

에 따른 수사관의 편견에 실증적 근거가 있는지를 교통사고조사관련 폴리그래프 검사자료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편견의 개념

편견(prejudice)은 심리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그 정의 또한 매우 다양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서창원과 김남일(2001 : 5)이 편견은 비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특정 대상을 부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Allport(1954/이원영 역, 1993 : 32)는 편견을 경직된 일반화에 근거하는 반감으로서 한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표출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Simpson & Yinger(1985 : 21-22)는 편견이란 사실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성되는 특정집단에 대한 고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주를 이룬다. 또 편견에 대한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편견은 차별과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편견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의견이나 믿음 또는 태도에 대한 것임에 비하여 차별(discrimination)은 편견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취해지는 행동을 말한다(Marger, 2005 : 95-98). 그러므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차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2. 편견형성 이론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하여 의미 있는 연구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은 Walter Lippman이었다. Lippman은 1922년 Public Opinion이라는 책에서 개인은 특정집단에 대하여 사회가 이미 정의한 대로 바라보며 그 정의에 부합되는 특징을 우선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또 Lippman은 이러한 시각은 대체로 그 집단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며 종종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편견을 형성토록 한다고 주장하였다(Hinton, 2000 : 26 재인용). Lippman의 초기이론 이후에 편견형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이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차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 복잡성극화이론(complexity extremity theory), 기대위반이론(expectancy violation theory), 추정특성이론(assumed characteristics theory) 등

이 있다.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믿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자문화중심주의에서는 다른 집단이나 개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데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기준점으로 하여 바라보게 되므로 자신과 다른 집단이나 집단에 속한 개인은 열등하다는 편견을 가지기 쉽다고 설명하였다(Cox, 1993 : 32). 본 연구에서 설명되는 편견관련 이론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다른 집단과의 비교의 준거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자문화중심주의와 내용상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복합성극화이론(complexity extremity theory)에서는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더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게 판단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복합성극화이론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자신과 동일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보다 더 적은 수의 판단기준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더 많은 기준을 사용할수록 보다 긍정적인 판단을 한다고 설명하였다(Jussim 외, 1987 : 536-537). 결국 이는 자신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은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한정된 수의 기준만을 사용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대위반이론(expectancy violation theory)에서는 고정관념이 한 개인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는 만약 어떤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다른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만약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보다 더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이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백인들은 성공한 흑인을 같은 수준의 성공을 이룬 백인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데 기대위반이론에서는 이를 흑인은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성공하였을 것이란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하였다(Jussim 외, 1987 : 537).

추정특성이론(assumed characteristics theory)에서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 속한 사람을 자신의 특성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추정특성이론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배경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개인을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개인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Jussim 외, 1987 : 537).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문화중심주의, 복합성극화이론, 기대위반이론, 추정특성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규준(norm)이라 보고 다른 집단을 긍정

적 또는 부정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하여 어떻게 부정적인 의견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편견의 내용

편견의 내용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서 Hall & Rohmberg(1995)는 편견의 내용을 능력, 나이, 외모, 신념, 계층, 문화, 가족구성, 성, 인종, 성애의 10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윤문숙, 2004 : 10-13 재인용). Hall & Rohmberg(1995)의 편견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편견의 내용²⁾

내용	정의
능력 (ability)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을 의미한다.
연령 (age)	젊음, 늙음 또는 그렇게 보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외모 (appearance)	크고 작은 키, 살찌고 마른 체형, 상처나 화상과 같은 상태와 관련된 개념이다.
신념 (belief)	어떤 것에 대해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계층 (class)	사회경제적 지위로서 개인의 생활양식을 반영한다.
문화 (culture)	동일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다.
가족구성 (family composition)	가족의 구조를 나타내며 가족의 구성, 구성원의 순위, 각 구성원의 역할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성 (gender)	남성, 여성을 나타내며 남성성과 여성성 및 이에 부여되는 역할과 성에 의한 차별대우(sexism)와 관련된다.
인종 (race)	여러 인종의 피부색과 머리카락의 형태, 얼굴과 몸의 형태 및 유전적으로 같은 조상에 의해 관련된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낸다.
성애 (sexuality)	동성애, 이성애와 같은 성적인 지향 또는 선호를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고혜진(1997 : 167-168)이 일반 사람들은 성에 대한 편견이 가장 많았고, 직업, 인종, 지역감정, 장애, 사회계층, 종교, 외모, 미혼모, 민족감정 등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편견은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2) 자료 : 윤문숙(2004 : 11)의 재구성

4. 편견이 수사과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편견은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³⁾. 하지만 여러 가지 편견의 결과 중 수사상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심리적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다. Nickerson(1998 : 175)은 확증편향이란 선택적 사고의 일종으로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증거를 쉽게 찾으며, 반대로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는 찾지 않거나, 찾더라도 낮은 가치를 주는 경향이라 하였다. Nickerson(1998 : 175)은 또 확증편향은 사람들이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기 쉽다고 하였는데, 이는 수사관이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기 쉽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확증편향이 수사관의 실제적 진실 찾기를 방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수사관이 모호한 정보를 자신이 수사상 세운 가설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사관이 자신이 세운 가설을 입증하는 정보의 수집에만 치중하는 것이다. 결국 확증편향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⁴⁾ 수사관은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보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있을 것이라 믿는 피조사자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된다.

5. 선행연구의 검토

국외에서는 경찰의 편견이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에 있어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편견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경찰의 편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었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외의 연구

경찰의 시민에 대한 편견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된 주제는 인종적 표적화(racial profiling)⁵⁾였다. 인종적 표적화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음주음전이

3) 서창원과 김남일(2001 : 159-192)은 편견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서 부정적 정보의 중요시, 결과위주의 평가, 처음 경험이 나중 경험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초두효과, 특정인의 배경을 중시하는 후광효과 등을 거론하였다.

4) Nickerson(1998 : 175-176)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세운 가설을 입증하려 하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가설을 증명하려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5) 인종적 표적화(racial profiling)란 한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의 인종이나 민족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에 관해서는 경찰이 어떤 사람의 인종이나 민족 등에 기인하여 그 사람을 검문검색이나 수사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Cleary, 2000 : 5).

나 마약사범 색출을 위한 자동차 검문검색을 흑인이 많이 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인종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인종적 표적화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경찰통계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경찰조직에 흑인들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인종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하였다(Engel & Johnson, 2006 : 606-607). 그러나 인종적 표적화에 관한 연구 중 일부는 흑인이 백인보다 검문검색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흑인이 통계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라며 통계 자료를 통해 인종적 표적화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Chakravarty, 2002 : 598).

인종적 표적화 이외의 주제로서 경찰조직에 어떠한 편견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일부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경찰조직에 인종적인 요인 이외에 성별, 사회적 지위, 표준어사용, 성역할 등에 관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예 : Terrill & Reisig, 2003; Muwakkil, 2001). 그러나 인종적 표적화를 제외한 일반적인 편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편견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편견에 실증적 근거가 있는지를 검증한 경우는 드물었다.

2) 국내의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의 편견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다만, 거짓말과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행동특성에 대하여 경찰관과 대학생의 고정관념을 비교한 연구(김재홍, 2005)와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rape myth)⁶⁾을 다룬 연구(김선영, 1989; 장미정, 2005)가 수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중 김재홍(2005 : 29-32)은 경찰관과 대학생의 거짓말 탐지능력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었지만 경찰관의 편견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대학생 집단과 비교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거짓말을 더 잘한다는 신념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김선영(1989 : 49-55)은 경찰이 비교대상 집단인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 중 강간과 관련된 편견, 즉 강간통념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 장미정(2005 : 51)은 경찰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강간통념이 높은 경찰관일수록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수사 중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밖에 경찰관의 편견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이대원(1989 : 8-9)은 그의 연구에서 수사관은 수사 시 범죄정보의 수집과 해석에 편견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김종욱(2006 : 76-78)은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수

6) Burt(1980)는 강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의 잘못된 신념을 강간통념(rape myth)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통념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Burt(1980)가 제시한 강간통념의 대표적인 예로써는 강간은 젊고 예쁜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강간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등이 있다(신현가·이상열, 2006 : 256-257 재인용).

사과정에서의 선입견 및 고정관념의 배제문제를 언급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의 편견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경찰관의 강간통념에 관한 것이거나 타 주제를 연구하면서 경찰관의 편견 문제를 부수적으로 언급한 수준이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피조사자의 신뢰성에 대한 수사관의 편견을 종합적으로 다루거나 그러한 편견에 실증적 근거가 있는지를 조사한 사례는 없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일부 수사관들이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보다 수사 중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편견에 실증적 근거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조사를 위해 폴리그래프⁷⁾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폴리그래프 검사자료를 이용하여 수사관의 편견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은 피검사자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후 각 집단 간 거짓말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만약 거짓말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수사관의 편견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차이가 없다면 이는 수사관들의 편견에 근거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확보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훨씬 더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그러한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사고조사에 있어 관련자간에 진술이 엇갈리거나 그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교통사고조사관은 관련자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의 폴리그래프 검사실에 사건을 의뢰한다. 사건을 의뢰받은 폴리그래프 검사실에서는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진술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진술하게 한 후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결과서에 피검사자에 대한 정보와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 및 진술의 진위여부를 기록하게 되므로 검사결과서는 본 연구의 실증평가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7) Polygraph는 그리스어로 "Poly=Many", Graph=Writing"라는 뜻으로 인체의 여러 생리현상을 기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폴리그래프가 허언탐지(기), 허위탐지(기), 거짓말탐지(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폴리그래프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박관규, 2003 : 14).

본 연구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광역시를 관할하는 모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실시된 총 173건의 폴리그래프검사의 결과서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전체 검사건수는 173건 보다 많았지만 검사 종료 전에 자백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해 검사가 중단되어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및 검사의 모든 단계를 거치고도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였던 경우는 모두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변수

1) 종속변수 : 거짓/진실여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폴리그래프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검사자의 진술이 거짓 또는 진실로 나타났는지 여부이다. 만일 피검사자의 진술이 거짓이면 종속변수인 거짓변수를 높게(거짓=1) 코딩하였고, 진술이 진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거짓변수를 낮게(거짓=0)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결과에서 거짓인 경우는 50.3%였고 진실인 경우는 49.7%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부터 추출가능하면서 진술의 거짓/진실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적특성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1) 운전기사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하나는 피검사자의 직업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사고조사 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진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검사자가 택시기사, 버스기사, 택배기사와 같이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높게(운전기사=1) 코딩하였고, 운전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낮게(운전기사=0)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2.9%의 피검사자가 직업운전기사였고 나머지 77.1%가 기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2) 초등학교

학력은 폴리그래프검사의 거짓/진실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사회 일각에는 저학력자들과 같은 사회하류층이 거짓말을 더 잘할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한다. 기존의 범죄학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여부나 대학교 졸업여부를 기준으로 변수를 이분화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전연구에서 살펴본 바, 피검

사자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만 거짓진술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 고등학교 졸업여부나 대학졸업여부는 거짓진술 여부와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검사자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을 경우는 높게(초등학교=1), 그 이상의 학력을 가졌을 경우는 낮게(초등학교=0)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1.0%의 피검사자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

사람의 성별은 거짓말을 하는 양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별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운전자가 여성이면 높게(여성=1) 코딩하였고, 남성이면 낮게(여성=0)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검사자 중 단지 17.3%만이 여성이었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전자의 수가 남성운전자의 수보다 적고 또 여성운전자의 경우 남성운전자보다 더 적은 시간을 운전 사용하므로 그 만큼 교통사고에 연루되는 일이 적기 때문이었다.

(4) 연령

연령대별로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연령을 실제나이 그대로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피검사자 중 최연소자의 나이는 21세, 최고령자는 71세였고, 평균연령은 43세로 비교적 30대 이하의 젊은 사람보다는 4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전과

경찰은 물론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 하나가 전과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거짓말도 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검사자가 전과자이인 경우에는 전과변수를 높게(전과=1), 전과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과변수를 낮게(전과=0)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검사자 중 6.4%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6) 결혼

결혼여부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양태에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높게(결혼=1) 코딩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 등은 모두 낮게(결혼=0)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검사자 중 70.4%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종교

대부분의 종교는 거짓말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피검사자가 종교를 가

졌는지가 거짓진술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검사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표기한 경우에 종교변수를 높게(종교=1) 코딩하였고,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는 낮게(종교=0)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피검사자중 48.8%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월수입

수입은 사회계층의 주요 지표로 쓰일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사람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검사자가 폴리그래프 검사지에 기록한 월수입을 그대로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나의 표로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분석에 포함된 변수

변수이름	변수 설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종속변수					
거짓	피검사자의 진술이 거짓이면 1, 진실이면 0	0	1	0.50	0.50
독립변수					
운전기사	피검사자가 직업운전기사이면 1, 아니면 0	0	1	0.33	0.47
초등학력	피검사자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1, 아니면 0	0	1	0.10	0.30
여성	피검사자가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0	1	0.17	0.38
연령	피검사자의 실제나이	21	71	43.31	11.05
전과	피검사자가 전과자이면 1, 아니면 0	0	1	0.06	0.25
결혼	피검사자가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0	1	0.71	0.46
종교	피검사자가 종교를 갖고 있으면 1, 아니면 0	0	1	0.49	0.50
월수입	피검사자의 월간 수입(단위 : 만원)	0	800	170	100

3. 분석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dichotomous variable)였으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PSS 14.0이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독립변수와 거짓진술의 빈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사전조사로 각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거짓진술 여부에 차이가 나는지를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빈도분석 결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사용한 피검사자의 인적특성과 거짓진술 여부에는 약한 관련성이 보였다. 예를 들어, 직업운전사들(54.4%)은 기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48.3%)보다 거짓진술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과자들(63.5%)은 전과가 없는 사람들(49.7%)보다 거짓진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초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16.7%)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54.2%)보다 거짓진술을 훨씬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이 있는 사람들(48.0%)이나 종교인들(48.2%)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조금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거짓진술 빈도분석표⁸⁾

변수	변수값	계	빈도	백분율(%)
운전기사	직업운전기사	57	31	54.4
	기타 직업	116	56	48.3
초등학력	초등학력	18	3	16.7
	중등 이상의 학력	155	84	54.2
여성	여성	29	15	51.7
	남성	139	69	49.6
전과	전과자	11	7	63.6
	비전과자	161	80	49.7
결혼	결혼 생활자	123	59	48.0
	비결혼 생활자	50	28	56.0
종교	종교인	85	41	48.2
	무교	88	46	52.3
전체		173	87	50.3

8) 연령과 월수입은 빈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교차분석을 통해서는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거짓진술 여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 이는 변수에 의한 차이는 사실은 다른 변수의 영향 때문에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인적특성들이 거짓진술 여부에 주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표 생략),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각 변수 중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결혼과 연령(.463), 초등학교와 연령(.330), 월수입과 성별(.327) 순이었고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다중공선성문제를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피검사자의 직업이 거짓진술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직업변수의 로짓 지수는 0.197로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직업운전기사들이 거짓말을 잘할 것이라는 편견이 근거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과 여부나 월수입 등 분석에 포함된 대부분의 변수들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피검사자가 전과자이든 아니든, 월수입이 얼마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종교를 갖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나이가 몇 살이든,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교통사고조사에 있어 거짓진술을 하는 것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2> 거짓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n=173)

변수	Logit coef.	유의확률	Exp(B)
운전기사	.197	.632	1.218
초등학교	-1.503*	.042	.222
여성	.698	.225	2.009
연령	.006	.772	1.006
결혼	-.529	.267	.589
전과	.004	.996	1.004
종교	-.410	.291	.664
월수입	-.003	.115	.997
상수	.834	.355	2.301

-2log우도=170.53, Nagelkerke R²=.107, *p<0.05 (two-tailed)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 중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변수는 초등학교학력 변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학력이 낮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랐다.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교통사고조사에 있어 거짓말을 할 확률이 그 보다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22%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p < .05$). 거짓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일부 수사관들이 사회 특정 집단의 신뢰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에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모 지방경찰청의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를 자료로 이용하여,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교통사고조사 시 거짓진술을 더 많이 하는지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이하의 학력을 제외한 어떠한 변수도 거짓진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집단이 수사 중 거짓말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수사관의 편견에는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수사관들이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설명했듯이 수사관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수사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의 대상을 차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경우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경우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수사관의 편견은 인권보호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편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로인해 경찰관의 편견이 끼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었다. 하지만 경찰의 편견에 의한 불공정한 태도와 그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 양산 및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편견에 대한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편견을 통제하려는 경찰의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편견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힐 때 경찰관들을 설득하여 편견을 버리도록 하기가 더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 본 연구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지방경찰청에서 일 년 동안 실시된 검사결과서 전체를 활용하였으나 표본의 개체수가 충분치 않아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폴리그래프검사가 실시되었던 지방경찰청이 있었던 지역은 광역시 중 한곳으로 도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 곳이었다. 이처럼 도시지역을 담당하는 곳으로부터의 표본이 다른 비도시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지역과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부터 더 큰 표본을 수집하여 본 연구가 가졌던 문제점을 극복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고혜진(1997). “반편견 교육과정 : 장애아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 논집』, 32 : 167-182.
- 김선영(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 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재홍(2005). 『경찰관과 대학생의 거짓말 행동특징에 관한 신념 및 거짓말 탐지능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림대학교.
- 김중욱(2006).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 박판규(2003). 『거짓말탐지검사 : Polygraph Examination』, 서울 : 삼우사.
- 서창원·김남일(2001). 『편견의 심리』, 서울 : 신세계커뮤니케이션즈.
- 신현가·이상열(2006).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1) : 249-275.
- 윤문숙(2004). 『유치원 반편견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 이대원(1989). 『경찰수사관의 수사인식』,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 Allport, Gordon W.(1954). 편견의 심리, 이원영 역(1993), 서울 : 성원사.
- Burt, Martha R.(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 217-230.
- Chakravarty, Shanti P.(2002). Economic Analysis of Police Stops and Searches : A Critiqu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8(4) : 597-605.
- Cleary, Jim(2000). *Racial Profiling Studies in Law Enforcement : Issues and Methodology*, Information Brief, Minnesota House of Representative.
- Cox, Taylor H., Jr.(1993). *Culture Diversity in Organization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an Francisco : Berrett-Koehler Publisher.
- Engel, Robin S. & Johnson, Richard(2006). Toward Better Understanding of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Search and Seizure Rat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6) : 605-617.
- Hall, Nadia S. & Rhomberg, Valerie(1995). *The Affective Curriculum : Teaching the Anti-Bias Approach to Young Children*, Nelson, Canada : International Thomson Pub.
- Hinton, Perry R.(2000). *Stereotype, Cognition and Culture*, East Sussex. Britain : Psychology Press.

- Jussim, Lee, Cleman, Lerita M. & Lerch, Lauren(1987). The Nature of Stereotypes : A Comparison and Integration of Three The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 536-546.
- Lippmann, Walter(1992). *Public Opinion*, New York : Free press.
- MacDonald, Heather(2003). *Are Cops Racist?*, Chicago : Ivan R. Dee.
- Marger, Martin N.(2005). *Race and Ethnic Relations : American and Global Perspectives*,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 Muwakkil, Salim(2001). Racism Causes Police Brutality, In H. Cothran(Ed.) *Police Brutality : Opposing Viewpoints* : 64-70, San Diego, CA : Greenhaven Press Inc.
- Nickerson, Raymond S.(1998). Confirmation Bias :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 175-230.
- Simpson, George E. & Yinger, Milton J.(1985). *Racial and Cultural Minorities : An Analysi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New York : Plenum Press.
- Terrill, William & Reisig, Michael D.(2003). Neighborhood Context Influence on the Level of Force Used in Citizen-Police Encounter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3) : 291-321.

ABSTRACT

A Study on the Empirical Basis of Prejudice towards the Credibility of Persons under Investigation

Lee, Ju-Lak · Tark, Jong-eon

Police officers have an obligation to their profession to continuously strive for fairness for all the people they serve. However, some police officers are believed to have developed prejudicial attitudes towards some groups of the society and exercised police power unfairly against them. Especially, when the actions of the police are prejudicial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 this can affect outcomes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he police need to tackle this problem effectively.

In order to develop a preventive strategy, the police mus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prejudice.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is topic in Korea.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fill the gap.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if prejudice of police officers are statistically valid. In order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e present study utilized the results of 173 polygraph examinations that had been employed to investigate traffic accidents in a provincial police agency in 2006. From the polygraph examination reports, information relating to the subjects could be identified and this information was analyzed, using a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revealed that most of the variables relating to the subjects did not affect the credibility of the subjects' statements. This means the police officers' belief that some groups of people make false statements more often than others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 is an unfounded prejudice.

Key Words : Empirical Basis of Prejudice, Criminal Investigation, Discrimination, Credibility of
Persons Under Investigation, Logistic Regression